

인구증가 및 곡물가격 급등 '식량안보 중요성'에 공감

일본협회 주최 도쿄서, 차기회의는 2013.10.16 - 18 제주서

기획관리부



제28회 한·일·대 3국 작물보호협회 회의(Sistership Meeting)가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일본 도쿄 Laforet 호텔에서 개최됐다.

일본농약공업회(JCPA)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국 공식 대표단 총 18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KCPA)는 한태원(韓泰元) 회장 등 5명,

주최국인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Kenjiro FUKUBAYASHI(福林 憲二朗) 회장 등 7명,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TCPIA)는 Wong, Hwei-Ching(翁惠清)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년간 3국 자매회의에 헌신한 공로로 대만 협회 Liao전 회장에게 3국 협회장 공동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3국 협회 회장단은 회의에서 전 세계는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수요의 증가와 미국과 중국의 자연재해로 인한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작물보호제(농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또한 28회를 맞이한 3국 자매회의를 통해 각국의 최신 정보공유는 물론 긴밀한 유대 강화로 작물보호산업 발전 및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협회 Mr. Harada, Akira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각 국가별 주요 정세 보고 내용을 알아본다.

한국작물 보호협회 (KCPA)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조상학 상무이사는 농업 일반현황을 비롯, 식량자급률 목표 및 과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PA) 개선,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계획 수립,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약수입 상황, 소비자 및 농업인 교육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은 1백79만7천ha로 이 중 수도재배면적은 85만4천ha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 1가구당 경지면적은 1.46ha로 나타났으며 농가 수는 1백16만3천 가구로서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6%인 2백96만2천명이다. 64세 이상의 농업인 고령화율은 약 34%로 농업생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귀농·귀촌 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전체 농가의 3.4%인 3만9천 가구로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2010년 54.9%에서 2015년 57%로 상향조정했으며, 2020년까지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지속적인 경지면적의 감소, 농업인의 고령화를 가속화 등이 있으며, 곡물수입도 세계 5위로 농산물 수입 증가도 주요 과제라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개정된 GAP제도와 관련, 생산자 중심의 집단인증제 도입, 인증기간의 연장(1년→2년), 식량, 과수, 채소 등 6개 품목군으로 세분화하는 등 GAP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2011년 까지 인증농가는 약 3%인 3만7천 가구로 2015년까지 재배면적의 10%인 12만 농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외래 및 돌발 병해충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식물방역법을 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관별 업무 전담 및 공조로 예찰, 방제 계획을 강화했다.

개정된 농약관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미등록 농약수입, 판매 처벌 근거 신설에 따른 농촌진흥청 및 작물보호협회의 캠페인 실시를 설명했다. 농약판매관리인 지정 등록 및 교육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실시한 제조업·수입업 판매관리인 교육실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농약 수급상황 및 품목 원재 등록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협회가 정부와 CropLife Asia 지원으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과워유저' 교육 및 '농업경영인 농약안전사용 마스터' 교육도 소개했다.

일본농약
공업회
[UCPA]

동일본 지진에 따른 복구 및 대응노력, 경지면적 감소와 휴경지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농가 인구의 감소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이 73%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식량자급률이 1990년 48%에서 2010년 39%까지 하락함에 따라 목표를 2012년 39%에서 2020년까지 50%로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경지면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가 감소했으며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는 1980년 18.4%에서 2010년 5.1%까지 감소했다.

농약 등록건수는 2011년 4,450건, 신규 등록건수는 182건이었으며, 신규등록 유효성분은 12개, 등록 실효성분은 4개로 총 등록 유효성분 수는 547개로 나타났다. 2011년 농약출하는 수량으로 19만5천톤(실물량), 금액으로는 3천2백80억엔으로 나타났다.

2010년 농림수산성에서는 4,745농가를 조사한 결과 부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한 농가는 1농가로 99.98%의 농가가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437건의 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건에서만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정부에 작물그룹화와 대표작물 선정, 농약등록 제출자료의 양식 개선, 농약등록에 필요한 데이터 정비 추진, 특허만료농약에 대한 자료요구와 재평가 제도 도입, 농약 사용 실태 파악, 사용시 안전에 관한 평가법 개선, 농민, 방제업자에 대한 지도, 소비자, 대중매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건의했다.

2012년 일본협회의 홍보와 관련한 주요 활동으로는 소비자, 특히 주부를 대상으로 농약의 역할, 식품안전 확보, 농약의 올바른 이해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약세미나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32회에 걸쳐 5,400명 이상이 참가했다. 또한 TV, 라디오, 잡지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미디어와의 정보교환을 8회에 걸쳐 실시했다. 교육관계자에 대한 활동으로는 초·중등 가정교사, 초등학교 사회·이과계 교사, 영양사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홈페이지 또한 새로운 농약사용자를 위해 사용방법 등 최신정보를 갱신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편했다.

대만구 농약공업 동업공회 (TCPIA)

2011년 농약관매액은 5,774
백 만 위안으로 살충제가
40.13%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살균제 28.75%,



제초제가 25.10%를 차지했다. 2012년 적용관세를 보면
원제는 0.5%로 WTO가입국은 0-2.5%, 비가입국은 2.5-
5%였으며 완제품은 WTO가입국은 2-3.5%, 비가입국

은 3.5-7.5%였다. 농약등록은 신규농약이 9종류였으며 1,592작물에 적용확대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만정부가 발표한 농약포장시험기관수를 보면 약효·약해시험기관이 대학 10개를 포함 30개 기관
이며, 농약잔류분석기관은 기업시험연구소 8개를 포함해 16개 기관으로 보고했다.

농약등록관리 정책 및 조치로는 농약확대사용을 위한 작물그룹화를 추진하여 유해생물 종류, 대표 사용범
 위 및 실시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592항목의 작물별 농약확대 사용이 승인되었다. 또
 574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고 123항목의 작물과 78항목의 병해충에 대한 방제약제 사용이 승인됐다.

관련행정 동향으로는 정부는 수입쌀 구매 등 식량안전저장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0년 식량자급률을 40%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대만에서 생산한 것은 대만에서 판매한다는 방침하
 에 쌀소비 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을 위한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병해충 발생정보 및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방법
 설명 등을 통한 작물의 건강한 생육 강화 그리고 농약잔류 조사 등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으로 농
 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개최된 스튜어드쉽(작물보호책임관리) 회의에서는 3국 대표단 이외에 일본 안전사용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별 스튜어드쉽 활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일본협회에서는 Sumitomo Chemical의 Hara, Masaki 안전대책위원장이 「Stewardship Activities of JCPA」에
 대해, 한국 협회에서는 바이엘크롭사이언스의 전병철 국제위원장이 「한국의 안전사용 및 책임관리」에 대
 해, 대만협회에서는 Yih Fong Chemical의 Chang, Chung-Li 국제위원장이 「대만농업을 위한 농약의 안전확
 보에 관한 대책」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심도 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제29회 한·일·대 3국 작물보호협회 회의는 한국작물보호협회 주최로오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㉞